

## 중가형, 11개 대기업·공공기관과 K-SCORE 협약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은 지난 5월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 5개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6개 공공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전문가 단체 포함)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K-SCORE)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기술자문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K-SCORE 사업은 중소기업의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까지 유도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의 바람직한 협력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5월 8일 IT중소벤처기업의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의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M&A 투자 촉진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등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투자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구조합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정통부, SoC 산업진흥센터 신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 SoC(System-on-a-Chip)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인 SoC 산업진흥센터가 새로 출범

한다.

그동안 IT-SoC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체지원사업은 수행체계가 분리·운영되어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수행 사업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SoC 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IT-SoC 사업단을 우수한 SoC 연구역량을 보유한 FTIRI로 이관했다.

SoC 산업진흥센터(www.asic.net)가 출범함에 따라 SoC 기업들은 FTIRI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IP(반도체설계자산) 등 기술적 노하우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기술이전에 따른 시제품 제작에서 시험·검증 및 마케팅에 이르는 산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해온 IT-SoC 핵심 설계인력 양성사업도 FTIRI의 오랜 연구 경험이 더해져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환경부(장관 이치범)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NOx저감버너를 설치한 인천지역 K중소업체에 최초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등 NOx저감버너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NOx저감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설치비가 2~4배 많이 소요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웠다. 때문에 노후 소형보일러(용량 10톤 미만)에 대해 일반버너 설치비의 차액(대당 최고 43~50백만원)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부는 NOx저감버너 보급 사업을 내년까지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인천·시흥·안산) 및 울산·광양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4년까지 전체 소형보일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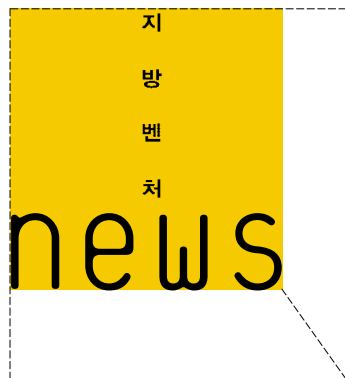
##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행사 성황리에 마쳐

세계여성경제인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2006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가 지난 5월 3일 폐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 중기청, 11개 대기업·공공기관과 K-SCORE 협약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중용)은 지난 5월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 5개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기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전문가 단체 포함)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K-SCORE)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기술자



문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K-SCORE 사업은 중소기업의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까지 유도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의 비람직한 협력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5월 8일 IT중소벤처기업의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의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M&A 투자 촉진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등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투자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IT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조합 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정통부, SoC 산업진흥센터 신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 SoC(System-on-a-Chip)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인 'SoC 산업진흥센터'가 새로 출범

한다.

그동안 IT SoC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체지원사업은 수행체계가 분리·운영되어 상호연계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수행 사업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SoC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IT-SoC 사업단을 우수한 SoC 연구역량을 보유한 FTIRI로 이관했다.

SoC 산업진흥센터(www.asic.net)가 출범함에 따라 SoC 기업들은 FTIRI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IP(반도체설계자산) 등 기술적 노하우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기술이전에 따른 사제품 제작에서 시험·검증 및 마케팅에 이르는 산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해온 IT-SoC 핵심설계인력 양성사업도 FTIRI의 오랜 연구 경험이 더해져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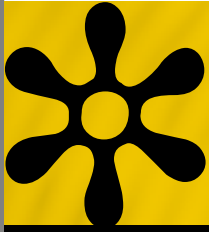
환경부(장관 이지병)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NOx저감버너를 설치한 인천지역 K중소업체에 최초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등 NOx저감버너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NOx저감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설치비가 2~4배 많이 소요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웠다. 때문에



노후 소형보일러(용량 10톤 미만)에 대해 일반버너 설치비의 차액(대당 최고 43~50백만원)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NOx저감버너 보급 사업을 내년까지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인천·시흥·안산) 및 울산·광양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4년까지 전체 소형보일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vd  
-rd  
dan

###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행사 성황리에 마쳐

세계여성경제인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2006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가 지난 5월 3일 폐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대회기간 동안 세계 61개국 700여 명의 여성경제인이 참가해 5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포함해 수출상담 1,000만 달러라는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여성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각 회원국간 여성기업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구축됐다.

###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체기술력 부족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 지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다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과 관내 대학,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 중인 중소기업 및 부천시 테크노파크에 입주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도 분야는 ▲공장자동화 및 생산관리 자동화 사업을 위한 기술 ▲제조설비,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개선에 관한 기술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어로 및 고유기술의 개선 ▲기타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이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신청서 및 계획서 7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자료 목록표 7부, 산업재산권, 품질인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1부, 가점 대상 관련서류 1부 및 원천장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서(2006년 1월분) 1부와 지도받고자 하는 제품의 사진 또는 카탈로그 7부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및 각종 양식은 '부천시 중소기업 홈페이지(www.peach21.net)'에서 왼쪽의 기업정보지원 클릭 후 <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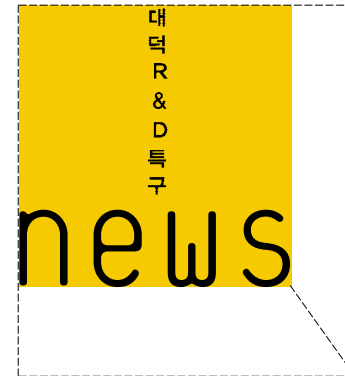
### 경기도, '중소기업 CEO 성공사례' 특강

경기도(도지사 손화규)는 지난 5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2,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EO 성공사례 특강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번 특강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CEO 특강과 더불어 면접클리닉, 이력서클리닉, 면접 체험 등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전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최근 원화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제통상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국제통상 아카데미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고유가, 저환율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월부터 70시간씩 2차례(1차:6~7월, 2차:9~10월)에 걸쳐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및 취업대상대학생 등을 대상

으로 국제통상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되며, 교육은 민간무역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추후 별도의 공고 절차를 통해 교육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 제9회

### 창조적 여성리더포럼 개최

- 일시 : 2006년 6월 16일(금) 오후 6시~7시 30분
- 장소 : 대전시 유성구 계룡스파텔 1층 무궁화홀
- 참여대상 : 여성경제인 및 정부, 유관단체 등 120여 명